

등록번호	B-001	
작품제목	남한산성 119 안전센터	
참가대표자	강성원	건축사사무소 강희재
대상지주소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239-1 (남한산성로 737)	
우편번호	12700	

문화재 경관을 거스르지 않는 공공건축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남한산성 경관에 거스르지 않는 공공시설물을 제안하였다.
소방서의 초기 계획안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기와지붕을 씌운 형태였다.
우리는 소방서가 들어설 대지 주변의 맥락과 경관을 고려하여 한옥 소방서를 제안하게 되었다.
한옥이며 동시에 소방서의 기능을 위해 소방서에 필요한 대형차고, 사무공간 등을
한옥이라는 뼈대안에서 적절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통기법에서 나아가 신한옥 기술을 적용하였다.
이에 더해 마당, 마루, 창호 등을 통해 한옥 고유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소방서를 계획하였다.



공간으로서의 한옥



STEP 1. 한옥소방서를 위한 설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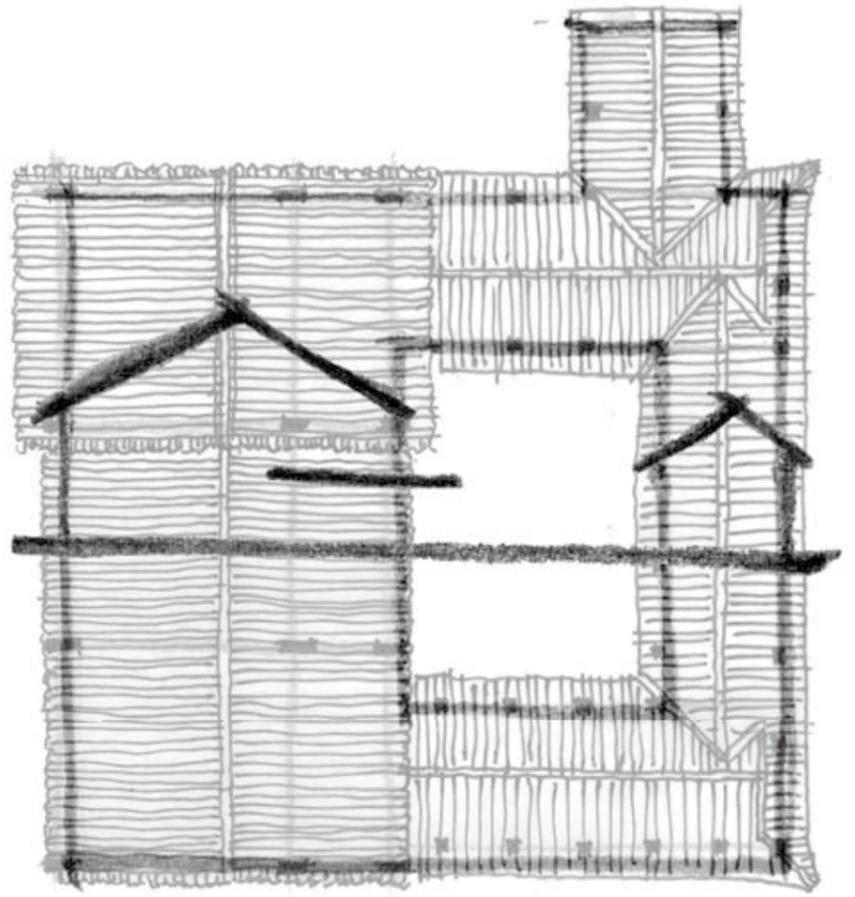
외관의 모습만 한옥인 철근콘크리트 조로 계획되었던 초기계획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주처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것은 진정한 한옥적 공간을 구현해야 한다는 부분이었다. 채나눔을 통한 구조의 해결 및 한옥적 공간 요소를 적용해 소방서의 기능이 한옥에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STEP 2. 채나눔을 통한 기능, 구조의 적용

소방서의 출동동선의 집중화 및 단순화를 위해 업무공간은 자연스럽게 생활공간과 분리되어 구성되었다. 기능에 맞게 업무공간은 앞채가 되고 생활공간은 뒤채로 나뉜 것이다. 나누어진 채는 필요공간을 위해 각각 다른 목구조를 적용하였다.

STEP 3. 채 사이의 느슨한 여유공간

나누어진 채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안마당이 구성된다. 생활공간인 뒤채는 안마당을 향해 창을 내고 안마당에는 쪽마루를 두어 느슨한 여유공간이 구성된다.



남한산성 119 안전센터 개념도



소방서의 기능을 담은 한옥

1. 소방서의 차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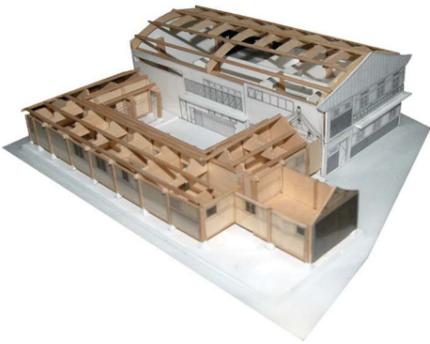
소방서에는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구급차, 펌프차, 물탱크차 등 대형 차량이 사용가능한 차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차고의 최소 Span은 약 7.5m, 높이 3.0m 이상으로 전통적 구법의 한식목구조로는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2. 앞채의 글루램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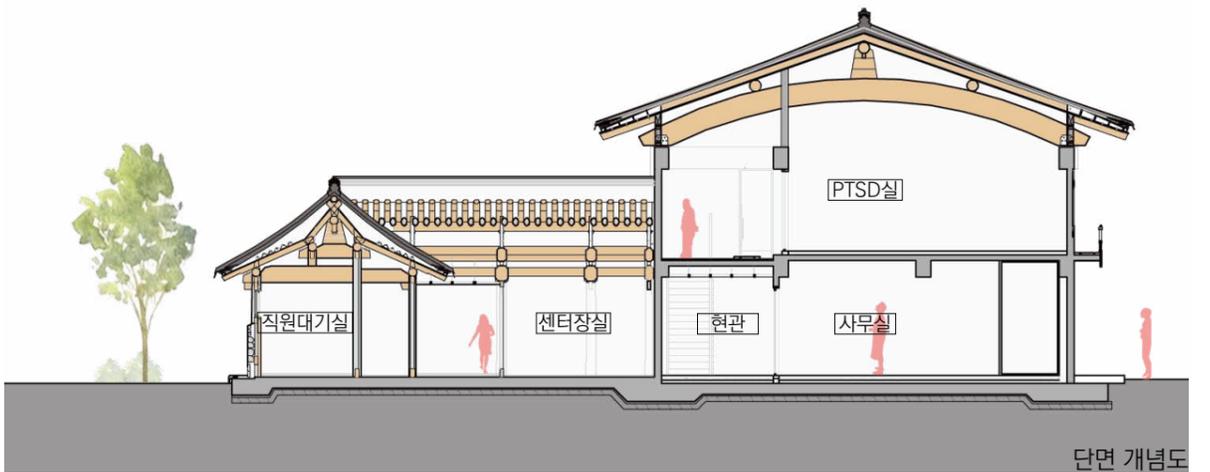
차고의 기능을 위해 대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글루램 구조를 적용하여 필요 Span과 높이를 확보할 수 있었다. 글루램 방식은 집성목을 가공하여 구성되는 방식으로 구조해결과 목부재를 사용하는 공간의 통일성을 확보하였다.

3. 뒤채의 한식목구조

소방관의 대기실 및 체력단련실 등 오랜시간 머무르는 생활공간은 한식 목구조를 적용하였다. 전통적 구법에서 나아가 신한옥의 기술인 경량벽체와 경량지붕을 적용함으로써 사용자 중심의 현대적 한옥으로 쓰여지길 바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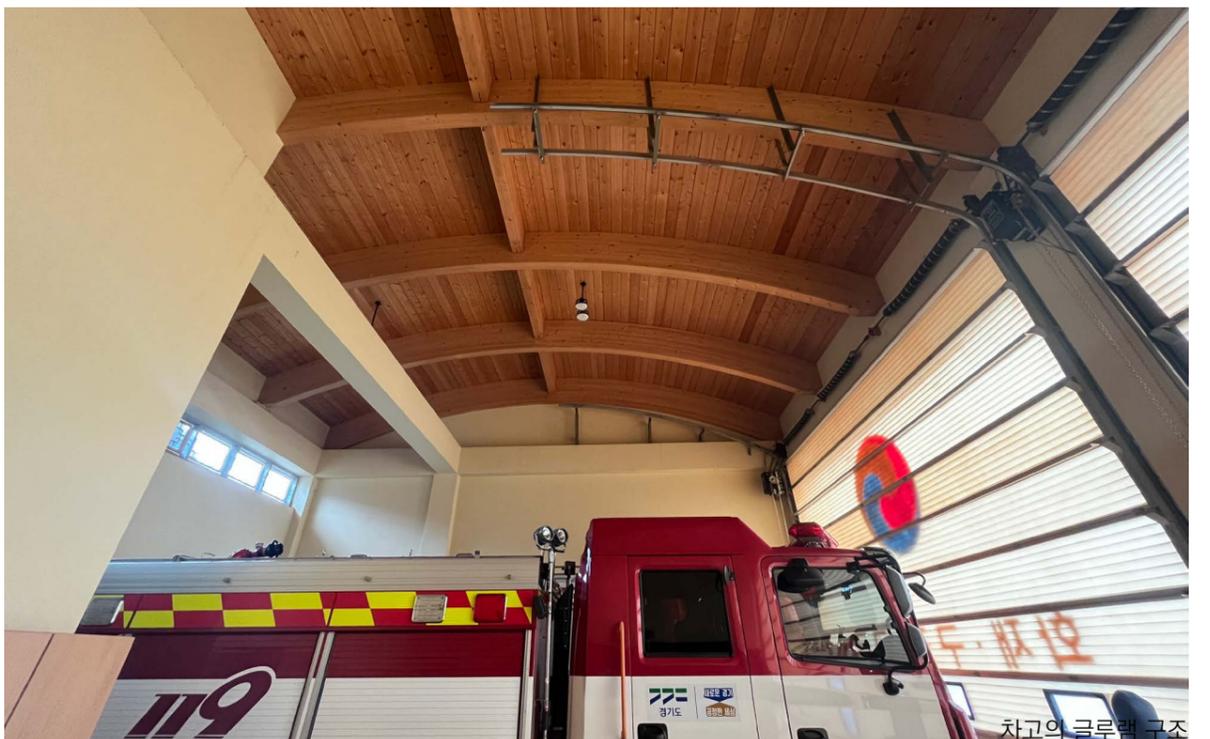
모형스튜디오



단면 개념도



PTSD실 내부



차고의 글루램 구조

전통한옥에서의 소방(消防)의 이미지

한옥이면서 소방서인 건축물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 전통건축의 화방벽 요소를 차용하였다. 동궐도(1820년대)에 나타나는 창덕궁 수방재와 같이 중요 물건을 보관하는 건물에는 벽돌과 같은 방화를 위한 재료가 벽체 입면부에 적용되었다. 임금의 어진이나 송배대상의 초상화를 보관하는 건물도 마찬가지로 화재방지를 위한 화방벽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전통적으로 화방벽 재료로 사용된 벽돌과 사고석을 입면부에 적용하여 한옥의 건축언어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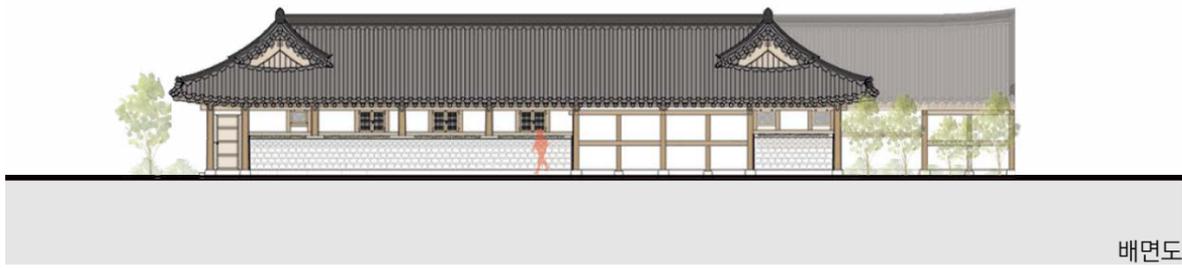


COVID-19에 대응한 한옥 소방서

위험에 맞서는 소방관들을 위해 편안하고 안정된 공간이 되길 바랐다. 앞채와 뒤채의 채분리를 통해 자연스런 안마당이 구성된다.

창호는 안마당을 향해 열려 외부를 조망할 수 있으며 안마당의 쪽마루에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뒤채인 단층의 ㄷ자형 한옥에는 직원대기실, 센터장실, 체력단련실, 샤워장 등의 실이 계획되어 출동 전 한옥의 편안함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는 한옥공간으로 구성하였다.

본 공모에 참가하기 위하여 준공 후 7년만에 다시 찾았다. 지상 2층에는 PTSD실(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치유실)을 두었는데 COVID-19를 겪으면서 격리된 소방관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였다고 한다. 안온한 한옥의 공간에서 격리기간 동안에 심신을 치유했다고 하니 나름 보람을 느낀다.



배면도



좌측면도



한식목구조를 느낄 수 있는 뒤채



앞채 2층의 외부난간



한옥의 요소를 적용한 입면



자연스레 구성되는 안온한 안마당